

한경 고교 캠프 참가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



“10단 논법, 인재 vs 인재 ... CEO와의 만남 가장 인상 깊었죠”

지난 5월19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경제 고교 리더스 캠프는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첫 강연은 경제학의 의미를 설명하며 시작됐다. ‘맨큐의 경제학’에 따르면,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학 속 선택과 기회비용의 원리, 그리고 시장 실패까지 미시경제의 전반적 내용을 사회 속 현상들과 엮어 풀이한 설명이 이어졌다. 다섯 범위 중 미시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한 여러 예제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선행 학습을 할 수 있었다.

CEO와의 만남 강의를 가장 인상 깊게 들었다. 수많은 사건과

현상의 상호 관계를 전부 고려하는 ‘10단 논법’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재 vs 인재 개념도 기억에 남는다.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변화의 시대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재 리더들을 인재(人災)로 치부하며 새로운 시각을 주문하는 것도 과격적이지만, 현재의 리더로 활동하면서도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거형 인재의 물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옛 지식과 책, 신문에서 나오는 해안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입시 설명회 및 멘토와의 토크로 이뤄진 후반부 일정 역시 큰 도움이 됐다. 막연히 정시는 시험을 잘 보면 들어가고 수시는 수행평가 열심히 하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입시를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 그리고 논술로 나눠 생각할 수 있었다. 최승범(충남삼성고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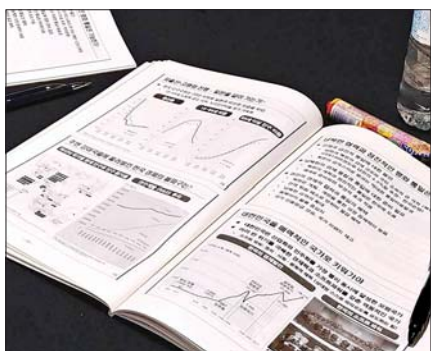
“답답했던 대학 입시가 시원하게 뚫렸어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님께 미시경제 강의를 들으면서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의 각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다. 또 미시경제가 어디에 쓰일지 평소 궁금했는데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 주체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시경제가 쓰인다는 것을 이해했다.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님의 ‘대전환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주제의 강의는 내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김은희 원장님이 논술에 대해서 설명해주셨고 수시라는 것을 대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나의 내신과 생활기록부 내용을 높게 평가받는지 알게 됐다. 멘토와의 대화 시간에 입시를 먼저 경험한 대학생 형, 누나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신뢰도도 높았고 인터넷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왔다. 또한 입시에 관해 잘 모르고 답답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시원하게 해결한 것 같다. 김민규(경우고 1년)



“경제·경영에 자신 없던 내게 ‘큰 격려’ 됐어요”



한경 고교 리더스 캠프에 참여한 것은 같은 경제경영 동아리 부원의 권유 덕분이었다. 경영 관련 동아리에 들어와 있지만 진로를 이쪽으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던 상태였고, 확신도 없었다. 관련 지식도 캠프에 온 친구들보다 부족했다. 캠프에 참가하기 직전까지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하면서도 백지에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기회여서 한편으로 기대했다.

경제학 고찰과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 7가지를 강의 해주신 김홍균 교수님, 지구온난화와 4차 산업혁명, 글로벌화와 정보화 등이 활개를 치고 있는 대격변 시대에 어떤 비전

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 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신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님, 거시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세계와 한국 경제의 흐름을 설명해주신 이종화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의 강의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인 경제경영에 대한 열정으로 뿔뿔 뿜친 학생들의 열의에 대답하듯 알찬 내용들이었고 경제경영에 그다지 자신이 없던 나에게 큰 격려와 같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적은 채 10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알찬 시간이었다. 임유진(이화여자고 2년)

“대학생 멘토들의 조언이 큰 도움 됐어요”

한경 고교 경제캠프는 여름방학에도 열려요~

경제학과를 희망해서 평소 한경 생글생글을 보면서 경제 NIE를 하고 있다. 마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캠프를 연다고 해서 즉시 신청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나는 개인으로 왔지만 단체로 온 친구가 정말 많았다. 평소 주변에 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와보니 또래 친구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미시경제학이다.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리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단기곡선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교수님께서 장기곡선을 설명해주 매우 인상 깊었다.

대학생 멘토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진행했던 동아리 프로그램 여러 가지 설명해주신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 또, 평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인데, 멘토님이 불안감을 놓는 연습을 하라고 한 게 마음에 와닿았다. 1학년 때 경제수업을 듣고 흥미를 느껴 경제학과에 가기로 결심했다. 한경캠프가 학교 이외의 첫 내딛음이었는데 좋은 강의를 듣고 많은 조언을 얻어서 진로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학교 후배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캠프다. 오지영(무학여고 2년)